

마음껏 즐겨라, 빛고을 따뜻한 情과 문화



젊음이 깨어난다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경기장(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음과 양의 기운이 만나는 역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젊음'이 탄생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한글 퍼포먼스 3일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한글(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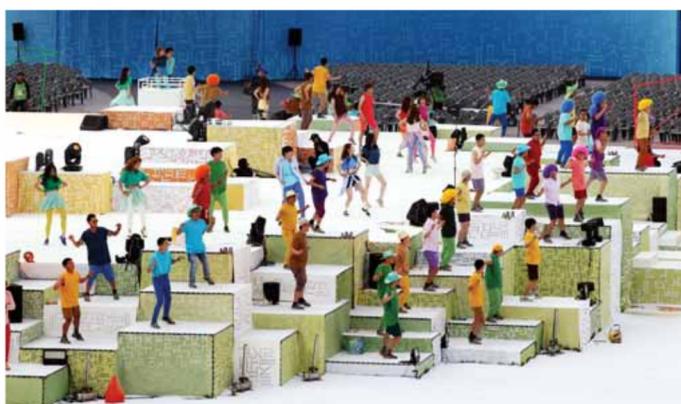
선수촌 국기 물결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휘날리고 있는 세계 각국의 국기.



개회식 즐기는 선수들 개회식에 참가한 레바논 선수단이 '스마일' 이미지가 그려진 공을 굴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관람석 풍경 각국 응원단 및 선수단이 개회식을 지켜보며 흥겨워하고 있다.



흥겨운 사물놀이 개회식에서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와 한울림예술단의 '젊음을 깨우는 소리' 식전 공연이 벌어지고 있다.



태동의 기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에서 '태동의 기운'을 주제로 열린 공연.